



김궁수의 길찾기

화두(話頭)는 놓치면 망상이 된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람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개념에도 적용된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198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 위즐 교수의 「무관심 극복의 필요」라는 글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이 급바해 지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지를 개척하기조차 어려운 판이다. 자칫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무관심을 부를 수도 있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무관심에 대한 경고는 이 시점에서 새겨둘만한 일이다. 우리의 삶에 근을 대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무관심에서는 화두가 나오지 않는다

노동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불쑥 불쑥 던지는 물음들은 화두가 되어 몸을 떨게 만든다. 요즘 경험하는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IMF관리체제를 부른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체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한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담합 고통은 어떤 것인가, 세계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21세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만 하고 눈앞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전술은 어떤 원칙에서 설립되어야 할 것인가, 잔혹 주눅들 전도의 목적을

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에게는 논문의 주제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실천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화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해답을 손쉽게 끌어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두로 삼아 여기에 매달려 해답을 찾기 위해 골몰해보자는 것이다. 중지를 모으는 일도 보람없이 애쓰는 헛된 수고는 결코 아닐 터이다. 화두는 놓치고 나면 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세계자본주의이든 한국자본주의이든 자본주의체제의 본질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논의의 출발은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어찌면 현실과 거리가 먼 공론이 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어찌라. 화두를 풀 열쇠는 거기에 있는 것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상품생산 경제와 생산의 무정부성 그리고 노동력의 상품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경제학자 김수행은 오늘의 경제위기 본질을 생산의 무계획성, 유효수요의 부족, 이윤율의 저하, 금융의 불안정 등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체제의 이런 특성이 현대자본주의에서 발현되는 형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현대자본주의는 위기의 계기들을 안고 있

으면서도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과 자본의 전세계에 걸친 집적과 독점화를 바탕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체제를 구축한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구(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생산 자본 유동의 국제화로 지배체제를 세계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는 이런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자본주의 구조가 안은 모순에서 찾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물론 이 자체도 논쟁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따로 떼어서 논의하는 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자본주의는 출발부터 자체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종속 또는 심한 대외의존 상태에서 전개되었고, 60년대 이후에는 국제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또 재벌이라는 특수한 독점자본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그것은 국가의 특혜와 지원을 통해 경제 지배력을 장악하여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은 자기발전을 제약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자본의 국제화 공세가 덜어닥치면서 한국자본주

의는 파탄에 가까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것이 화두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논의를 진행하는 데서 실마리를 삼자는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 제안이 잘못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닌 듯 하다. 어차피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이끌기 위한 문제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개인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동아리든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당장이라도 진행하자는 것이다. 결론 도출에 대한 성급한 욕심은 금물이다. 어쩌면 쉽게 나온 깔끔한 결론이 실천상의 큰 오류를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담한 고난과 처절한 패배 겪을 수도

노동운동이 오늘의 이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막막한 생각이 앞서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짐작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엄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위기국면이 장기화되어 대량실업이 굳어지고 고용불안이 기약 없이 계속되면서, 실질임금은 감소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은 고

용보장을 구실로 '양보교섭'을 마지못해 벌이게 되고, 때로는 사용자쪽의 교섭안을 중심으로 노조쪽이 오히려 타협안을 내놓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단체교섭의 기능이 줄어들고 노사협의의 구실이 커지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런 정황 속에서 노조 조직률은 저하되는 한편,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는 떨어지고 자도력과 통제력이 약화됨으로써 투쟁력은 추스르기 어려울 지경으로 악화되는데다 대정부·대자본에 대한 요구제기마저 무게를 실기 어려운 경우는 오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처지에서는 고난에 찬 '상실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상상하기조차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상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실의 극복은 현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발전은 점진적이고 자연성장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패배와 승리, 정체와 비약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는 노동운동 발전의 업연한 역사 경험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또한 화두에 다가가기 위한 인식의 단초일 뿐이다.

얘기를 좀더 진전시켜 보자. 노동운동 발전은 점진적인 확대의 시기와 폭풍과 같은 급격한 성장의 시기가

엇갈리면서 진행한다. 때로는 노동운동이 매우 느리게 전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절한 패배를 겪기도 하고 뛰어넘기 어려운 참담한 고난에 부닥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비약과 고양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자의 투쟁성이 주기적으로 발휘되는 것과 바로 이어지고, 정체와 후퇴의 시기에 쌓인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양상과도 직접 관련된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관련하여, 『세계노동운동사』의 저자인 W.Z.포스트의 주장을 들어보자. “노동자계급의 높은 자발성과 전투정신이 주기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도 주의해야 한다. 즉 이 전투성이 적절하게 훈련되고 조직되고 지도되지 않으면, 때로는 패배하여 이 전투성도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노조를 만들고 활발한 투쟁 속에서 이것을 지도해 갈 때, 노동조합 발전의 일반법칙에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의 의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화두는 스스로 푸는 것

나관주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도무지 말발이 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비관주의가 넓은 동의를 얻기에는 역사 경험을 차마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선은 화두에 악착같이 매달려 ‘정진’의 자세를 갖는 일도 중요할 듯 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수없이 계속하고 토론하자. 그리고 공부하자. 결코 지나쳐 가거나 남아 안겨주기를 기대할 일도 아니다. 노동운동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답은 어차피 실천을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으며, 시행착오는 적을수록 좋으나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온통 빠르게 변화하는데, 굳어진 생각으로 여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 경험과 그 속에서 얻어진 원칙 그리고 실천을 통한 창의가 결합될 때 새로운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관주의는 비로소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길은 어쩌면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화두를 놓치지 않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